하늘을 날며 마음을 넓혀요

‘인간 새’ 꿈꾸는 패러글라이딩 광주연합회

주말이면 꿈과 사랑 싣고 바람따라 구름따라 ‘둥둥’

광주 9개 클럽에 300여 회원… 창공으로 일상 탈출

인간으로서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은 강렬함을 넘어 죽음에 이르는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화 속 이카루스의 날개가 그렇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글라이더로 하늘을 날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그렇다.

광주·전남 광산구 어등산, 광산구 삼도 망산, 무등산, 화순 만연산, 창평 월봉산, 영광 장암산 등에서는 이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이카루스의 날개를 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주인공은 패러글라이딩 광주연합회 소속 회원들.

광주에는 프리맨, 씨호크, 무등파라, 산천 패러, 알파, 조선대 알바트로스, 스카이, 기아 등 패러글라이딩 광주연합회 회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 파아란 하늘을 유유히 비행하며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산유원지 인근 어등산. 광주 패러글라이딩 연합회 회원들이 까칠해진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승남(42) 패러글라이딩 광주 연합회 사무국장은 “오전에는 바람이 비행하기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바람이 세져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오후 4시 쯤이면 비행이 가능 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9개 클럽 300여명의 회원들이 주말을 이용해 하늘을 날고 있으며 이중 100여명은 거의 매주 어등산과 삼도 망산, 화순 만연산 등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나 사무국장은 “전남지역에서도 10여개 클럽 회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늘을 날으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이들을 한 군데 모으기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단일 클럽에 소속돼 활동을 하지만 주말마다 기상상태가 좋은 곳을 찾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연합회 소속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날 만난 이들도 프리맨 클럽을 주축으로 몇개 클럽 회원들이 섞여 있다.

김용선(47)프리맨 클럽 스쿨장은 20년 경력으로 전국에서 이름난 강사다. 4천회 비행기록과 생활체육패러글라이딩 교육이사를 맡고 있다.

김 스쿨장은 “자유를 꿈꾸는 우리들은 단일 클럽으로 묶으려 하면 안됩니다. 자유롭게 만나서 교류하고, 가족들도 함께 나와 전 연합회 회원들이 가족처럼 지낸다”고 말했다.

김 스쿨장은 “패러글라이딩은 육체적 운동보다 정신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와 일상에 바쁜 현대인에게 더욱 적합한 레저다”며 “한번 접하게 되면 하늘에 떠 있는 매력에 푹 빠져 들게 된다”고 말했다.

패러글라이딩 입문 4년차 이현삼(54)회원은 “해맞이 행사에 갔다가 우연히 해맞이 패러글라이딩 비행을 보고 입문하게 됐다”며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으로 도시 생활에 지쳐있다가 하늘을 훨훨 날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고 자랑한다.

한쪽에선 2년6개월된 한경달(34) 회원이 캐노피(Canopy)를 펼치고 지상에서 바람의 방향을 잡으며 비행을 위한 지상훈련을 하고 있다.

미혼인 한 회원은 결혼하기전 주말을 이용해 마음껏 비행을 즐기고 싶어한다. 특히 배우자가 생기면 반드시 같이 하늘을 날며 사랑을 키우겠다는 꿈을 꾼다.

오봉록(37) 기아활공회 회장은 “패러글라이딩 고수들은 6시간정도를 하늘에 머물 수 도 있다”며 “나주에서 비행을 하면 패러글라이딩으로 목포까지 비행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12년차로 강사자격증을 획득한 오 회원은 “하늘을 훨훨 날며 느끼는 짜릿한 쾌감은 어느 운동과도 바꿀 수 없다”고 웃는다.

이제 갓 처녀비행을 한 원정문(35) 회원은 5개월된 신출내기고, 자영업을 하는 오상현(29) 회원은 3년4개월 경력으로 어등산에서 비행 후 화순으로 옮겨 비행을 할 정도로 푹 빠져있다.

3년차 최대영(32)씨와 4년차 장옥환(42)씨도 기자에게 한 번 타봐야 만 패러글라이딩의 참 맛을 알 수 있다며 텐덤비행(강사와 함께 타는 2인승 체험비행)을 권유하기도 했다.

바람이 잦아든 어등산에는 광주연합회 패러글라이딩회원들 캐노피가 하나 둘 씩 펼쳐져 파란 하늘에 그들의 꿈을 수놓고 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용선(맨 오른쪽) 프리맨 클럽 스쿨장 등 광주 패러글라이딩 연합회 회원들이 비행 하기전 파이팅을 외치며 무사비행을 기원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입문하려면

‘프리 맨’ 등 전문 스쿨서 교육

20시간 이·착륙 훈련 후 비행

〈헬멧〉

〈고도계〉

패러글라이딩은 프리 맨 등 전문 스쿨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호회에 가입하더라고 스쿨교육은 필요하다.

단독 비행을 하는 데는 3개월정도가 필요하다. 입문 교육은 4시간의 지상훈련을 마치고 20시간 정도 이·착륙 훈련을 받는다. 4주차에 이르러 200~800m 비행 훈련을 받고 교육생은 무전기로 강사의 지시를 받으며 첫 비행을 할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기체(캐노피), 하네스(낙하산에 연결하는 의자), 예비 낙하산, 헬멧, 방한복, 비행화, 무전기, 고도계 등이 필요하며 구입 가격은 350만원~400만원선이다.

하지만 초보자는 동호회로부터 중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150만원선. 또한 패러글라이딩은 남·여를 가리지 않고 체중에 따라 장비 무게가 달라지며 초급기, 중급기, 고급기로 구분된다. 초급기는 스쿨의 교육용 장비며, 중급기는 스쿨 교육과정을 마친 초·중급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